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 “지역 발전 전기” 환영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발전 기대감·미래 비전 제시

특별법 제정 역할·실행 책임 부각

“초대 특별시장 적임자” 한목소리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 8명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통과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역할과 실행 책임을 부각하며 자신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각각 입장을 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추진 선언 50일 만인 2026년 3월 1일 밤 9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시장은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되는

위대한 대통령·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쾌거이자 성과”라며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법 통과로 광주·전남은 반도체·AI·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대통합 특별시의 기본을 다지고 모두가 단합 속에서 대부흥의 초석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산읍)은 “특별법 의결에 따른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 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발전의 기회, 한 치의 오차도 양보 없이 제대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다시 새롭게 도약할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통합이 일자리 확대와 기업 투자, 교육·의료·교통 등 시·도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주어진 권한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분권과 균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저의 오랜 꿈, 광주·전남의 통합이 이뤄졌다. 정말 팔짝 뛰고 싶은 만큼 좋다”며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크게 성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남부권의 경제수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냈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은 “특별법안 통과는 위대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전남과 광주는 끈끈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행정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통합된 전남·광주가 고르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힘없이 뛰겠다”고 적었다.

정준호 국회의원(북구)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상 응원해준 호남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통합의 성공에 걸림돌이 나타날 때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은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여는 출발선”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으로 행정 통합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변화로 연결해 전남과 광주를 더 크고 더 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정준호 ‘호남을 듣다’ 출판기념회 성황

통합 방향성·지역발전 해법 공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지난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준호의 대화-호남을 듣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는 강득구 최고위원과 박지원·김태년·이해식·김성희·이건태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안도걸·박균택·전진숙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3천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저자 특별 강연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온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시민 삶의 과정에서 얻은 정책적 통찰을 공유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단독 통과되기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과 이면의 이야기를 시·도민들과 나눴다.

정 의원의 저서 ‘정준호의 대화 호남을 듣다’는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정취해 온 광주·전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정준호 의원은 “행정통합이 호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끝까지 굳센 결기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은진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광주 광산구 힐트 베이커리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청년이 묻고 답하다’란 주제로 열린 지역 청년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소영호 장성군수 출마자 출판기념회 성료

장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소영호 전 목포부시장이 2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자서전 ‘내 고향 장성을 그리다’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각계 인사와 군민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소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전남도의 국·실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 관계로 축하 영상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를 대신해 배우자인 정라미씨가 자리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저서 ‘내 고향 장성을 그리다’는 소 전 부시장이



이 장성에서 태어나 성장한 과정과 26년에 걸친 공직 경험, 장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특히 산업과 농업, 인구 문제 등 장성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실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소 전 부시장은 “이 책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그려가자는 제안”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김지사 “전남·광주 통합이 곧 경제·산업·일자리”

광주에서 청년들과 행정통합 간담회

일자리·일상의 변화 등 질문 쏟아내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후 광주에서 지역 청년들과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곧 경제이며, 산업이고, 일자리라는 점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들이 있다”며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통합의 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대·조선대·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대학생을 비롯해 2000 청년들과 함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뒤 점심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통합특별시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일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좋은 일자리가 정말 없다.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전남의 만원주택을 광주에서 누릴 수 있는지’,

‘4년 간 20조원 지원 이후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행정통합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는 게 김 지사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만난 청년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가슴에 적어두겠다”며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한 그들의 눈망울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또 “청년들의 질문에 대기업 유치와 혁신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공론화위원회 구성, 청년 참여 예산 조례 제정, 만원주택과 유사한 도시형 청년주택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김재정기자